

오피니언

월/요/광/장

양성우



김연아는 예쁘다. 얼굴도 몸매도 말썽씨도 예쁘다. 그녀가 얼음판 위에서 마음껏 몸을 돌려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승리하는 모습도 예쁘고, 승리한 뒤에 두 손을 모아서 총 쏘는 시늉으로 세레모니를 하는 것도 예쁘다. 그녀가 경기를 마친 뒤에 입을 가리면서 눈물을 지어도 예쁘고 어깨를 크게 펼치면서 밝고 환하게 웃어도 너무 예쁘다.

노파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아가씨가 금메달을 올려주는 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던가. 오오, 시상대 위에 선 그녀의 빛나는 모습을 보았는가.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그녀가 손가락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는가. 그

계관을. 또한 그녀의 맑고 진한 눈물을. 이럴 때 감히 그 누가 그녀의 이쁨만 듣고도 어찌 감히 감동하지 않을 것인가.

정말이지 김연아 그녀는 이제 우리의 희망이다. 너무 오래 때 절고 찢든 세상이라는 먹구름의 틈으로 비치는 눈부신 햇살이다. 타락한 지역이주주의도 낮뜨거운 정치꾼들도 모두 비켜라.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들은 사라져라. 그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것이라면 흔적도 없이 흩어져라. 오늘 우리는 비록 살기에는 힘들어도 절대로 외롭거나 슬프지 않다. 우리에게 김연아가 있다. 찬란한 꿈으로, 짜릿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 영웅들만 오게 하자. 그들이 나란히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도록 하자. 정말 우리는 어떤 생각의 의무를 벗고 다 함께 웃는 얼굴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적을 높이며 우리의 자존심을 키워 준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자. 저 얼음판 위에서 여유자작 춤을 추는 김연아, 그리고 그녀와 함께 밴쿠버에 간 우리 선수들.

아무리 보아도 김연아는 예쁘다. 그녀가 피겨의 여왕이어서 예쁘고 CF에 많이 나와서 예쁘고 날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예쁘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세상을 다 덮다시피 하여 더욱 예쁘다. 이제 그녀라면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안다. 심지어는 그녀의 어린 날의 성장과정이라든지 가족관계까지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미 세상은 그녀에 대하여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 그렇게 보면 그녀는 짧은 시간 안에 배움준·이병현과 조수미, 장하나, 박세리, 박찬호, 양용은, 신지애 등등 큰 별들의 한가운데 섰다. 마치 깃발을 들고 진군하는 잔다르크처럼 감격적으로. 그 결과로 김연아 신드롬이 번지고 있다. 그녀처럼 웃고 말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의 물결이.

그때, 우리 모두 그 아름다운 김연아의 신드롬에 흠뻑 빠져 허우적거리 보자. 만세, 우리의 여왕, 김연아 만세!
(시인·한국간행물윤리위원장)

김연아 신드롬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를 살리는 그녀가 있다. 하얀 얼음판 위에 핀 곱고요한 송이의 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쳐버리고 밴쿠버의 영웅들의 이야기만 하자. 우리의 식탁에는 절대로 무책임하고 교활한 사람들이라든지 거짓사람들의 이야기는 올려놓지 말자. 여기저기 들추시며 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편 가르기를 일삼는 무리들이 우리 사이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하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화 속에 김연아만 오게 하자. 그리고 이상화와 모태범과 이승훈, 이정수 등등...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주립주립 금메달을 목에 건

시설

대한민국 위상 드높인 태극전사들의 쾌거

지난 2주간 온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5위를 차지해 빙상 강국으로 떠올랐다. 사상 최고의 성적인 14개의 메달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쇼트트랙에서만 강세를 보였던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찬 성과를 거뒀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를 동시에 제패했고 아시아에서는 '넘지 못할 벽'으로 여겨졌던 남자 1만m와 5천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는 '여제' 김연아가 올림픽 역사에 길이 남을 대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태극전사들의 연이은 승진보는 팍팍하고 고된 일상을 잠시나마 잊게 해준 청량제였다. 우리보다 역사가 60년이 나 빠른 일본을 물리치고 결선레이스에 진출한 봅슬레이 대표단의 선전도 감동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빙상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질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한 덕분이다. 여기에 신세대 선수들의 끈질긴 도전정신이 맞물려 세계가 놀란만한 성적을 올린 것이다.

동계 올림픽 선전으로 무형의 반사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향상은 물론 사회 전 분야의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비인기 종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져야 빙상 강국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태극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낸다.

학교로 번지는 서민가계 주름살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수업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장기체납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를 그만두는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지역 고교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은 전체 6만5천938명 중 1천106명(1.6%)에 이른다. 이는 1년 전 370명보다 무려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시 교육청이 지난해 전체 고교생 중 저소득층 학생 등 10%에 이르는 8천734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이는 10명 중 1명꼴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국의 각종 지원에도 수업료 장기체납학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서민가정 경제가 단순히 어려운 정도를 넘어 한계상황에 다다랐음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국

민 1인당 1천500만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특히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에급취급기관의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7조6천억원이 늘어 분기별로는 사상 최대의 증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수업료를 마련하지 못해 정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급증하는 교육계의 현실에 대해 정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 같은 계층간 불평등이 학교로 번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진 교육'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정부는 우선 의무교육을 확대, 아무런 부담없이 고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수업료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저리·무이자 학자금 대출 전면 확대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는 교육현장에서 먼저 실현돼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곡창(穀倉)인 호남에는 절기와 시절에 맞게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해온다. 그 대부분은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몰려 있다. 대표로(上元)이 중원(7월15일)과 하원(10월15일)을 포함한 삼원 가운데 으뜸이기도 했지만,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년 중 유일하게 일손을 놓고 쉴 수 있는 농한기였던 까닭이다.

대보름의 세시풍속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달과 관련된 것이 많다. 달의 모습을 보고 한 해의 운세와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망월점(望月占)이 전형적이다. 달이 뜨는 모양이나 빛깔, 위치, 크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달빛이 푸른 빛이 돌 듯 맑으면 풍년이 들고, 붉은 빛이면 가뭄과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달맞이(迎月)를 하면서 저마다 소원을 빌기도 했다. 달집태우기는 한껏 커진 달을 향해 풍년을 기원하면서 역운 시투에는 락을 해서 달을 맞았다. 달이 전해준 복을 가득 담은 시투엔 오곡밥을 지었다. 오곡밥은 생씨가 다른 세

집 이상의 밥을, 하루 동안 아홉 번 먹어야 좋다고 했다. 받은 복을 서로 나누므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 것이다.

올해도 광주 남구 고씨음푼이집수관과 해남 우성영을 비롯 농촌마을 곳곳에서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 연날리기, 당산제 등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열기는 해가 갈수록 식어가는 분위기다.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에 가려진 이번 대

보름은 더욱 그렇다. 세시풍속에는 자연 및 우주와 소통하며 삶을 꾸려가고자 한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생활에 여유와 활기를 주고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이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지자체와 교육당국도 컴퓨터게임과 TV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의식세계를 민족 고유의 정서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문화의 원형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정후식 경제부장 who@kwangju.co.kr

세시풍속



기고

정선수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고독하게 끊임없는 인내와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인생과 마라톤은 닮은꼴이다. 반면 마라톤을 인생의 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마라톤 애호가들의 얘기가.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과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라톤에 찬론자인 나는 당연히 그 해법으로 마라톤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렸을 적 어머니의 품안에서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느끼는 것처럼, 세

은 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 도착지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주저않고 싶은 자신과의 싸움을 즐기는 동안 세파에 찢든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깨우침과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만족감, 삶의 현장에 대한 자신감은 덤으로 얻게 된다.

단순 무식하게 목표만을 향해 돌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도한 질주의 욕

달리기로 꿈꾸는 1등 건강도시 광주

파에 시달리는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라톤을 통해 힘찬 심장의 고동소릴 운몸으로 느끼며 삶의 활력을 충전한다. 그만큼 묘약도 없다.

나름대로 정한 코스를 달리면서 나 자신에 몰입할 수 있다. 힘겨운 그러나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며 끝인지점을 향해 한발 한발 때어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여정이다. 일상에서의 잡념과 스트레스 따위의 얽힌 감정들은 어느새 달아난다. 무엇보다 레이스 구간에서 교감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른한 황홀경을 선사한다. 한껏 달아오른 몸을 스치는 바람결, 교묘히 비치는 달빛, 길옆의 물부리, 풀포기 등 순간순간을 함께하는 만상(萬象)이 내게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곤 한다.

"하필 그렇게 힘든 운동은 하나냐?"는 주변의 걱정도 있다. 그러나 그 매력

을 억제하고 자신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는 고비(苦畵)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어느 수련보다, 그 어떤 수행보다 알찬 완성의 과정인 것이다.

날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이다. 평상심을 유지하며 울퉁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대 사회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튼실하게 유지하면서 치열하게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라톤을 권하고 싶다. 모든 시민들이 마라톤을 통해 자신을 돌보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회, 건강한 광주를 만드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한 우리 광주가 마라톤을 통해 1등 도시로 변해가는 소망을 새해 포부로 삼고 싶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서남해안 중국산 쓰레기 물살... 정지적 수거 필요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섬 여행을 즐겼다. 그런데 전남 여수시, 경남 남해 섬지역 등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가에 중국 등지에서 밀려온 바다쓰레기가 적잖았다.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해류를 타고 떠내려간 각종 쓰레기가 일본 대마도 쪽에 쓸려가 그곳을 더럽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뜻있는 대학생들이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다.

쓰레기 중에는 중국산이 가장 많으며,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의 쓰레기가 함께 범벅돼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바다쓰레기가 바다에 떠 있을 때는 해변

에 투과될 빛을 차단하게 된다. 그러면 햇빛을 받아서 자라야 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해 물고기들의 먹이를 감소시킬 것이다. 바다든 육지든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는 먹이사슬과 생태계라는 게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결국 우리의 어족자원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다. 국가 간 이동쓰레기가 심각한 실정임으로 국제협력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해양환경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정기적으로라도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 3년이 바다이니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의 보고를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윤용득·광주시 서구 덕흥동

법조칼럼

이재희



필자는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발령나기 전까지 광주지법에서 근무했다. 오 늘은 1년여를 고향인 광주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2009년 광주지법 부임 당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근무지를 옮겼다. 광주 법원은 필자의 출생지인 곡성을 관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릴 적 광주에서도 거주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나 접할 수 있는 감칠맛 나

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큰 발전이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수출대국의 반열에 들고도 감히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걸치레가 아니라 서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광주유감(光州有感)

는 음식들과 늘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인심은 가족을 두고 홀로 떠나 온 사람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다.

광주는 예부터 예향으로도 이름이 높았는데, 5·18 민중항쟁의 결과로 현재는 민주주의의 성지(聖地)라고도 불린다. 광주 사람들은 여러모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만 한 것 같다.

이러한 광주에서 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는 동료들에 비하여 근무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다가도 문득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음을 숨길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기초질서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피운 담배꽂이를 차 창문 밖으로 주저 없이 던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길바닥에 끊임없이 침을 뱉어대는 대학생 등등 볼 때마다 참 짜증나게 하는 모습들이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호칭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사소한 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음에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진국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기초질서 준수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운전 중 신호 위반이나 대로변 무단주차 등이 매우 심각한 편인 것 같다. 가끔 택시를 타게 되면 너무도 태연하게 신호를 무시하는 택시기사도 많다.

또 "남이야 어찌되든 관심 없다"는 뜻이 대로변 모퉁이에 불법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수많은 차들이 체증을 겪어야 하는 광경을 보는 것도 낯설지 않다. 이 때문에 작년부터는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필자의 경우에는 광주의 기초질서 확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신호위반을 일삼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단속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로 다스려 질서유지를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긴 하지만, 보다 이상적인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그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뿐이다.

올해는 민주주의의 성지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기초질서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으면 한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민명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